

대행 스님

여러분은 항상 평등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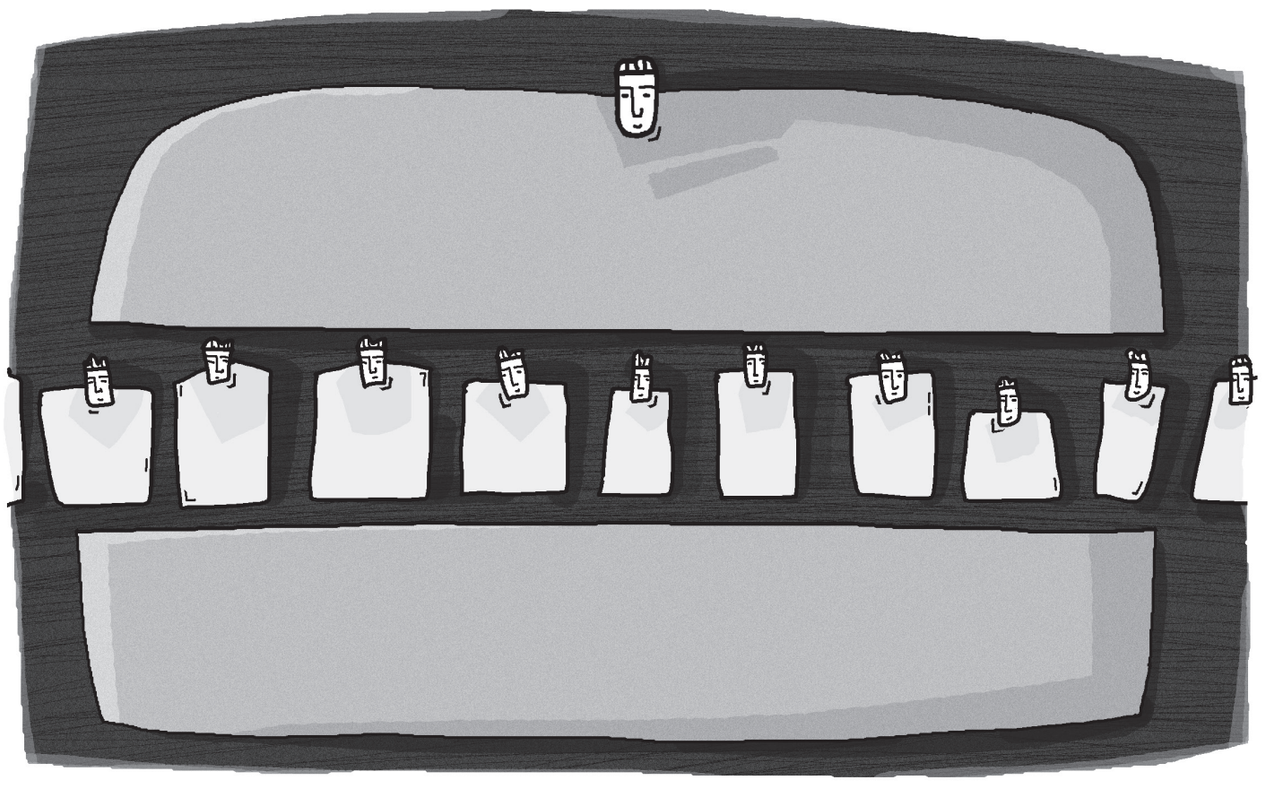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뛰고, 뛰면서 생각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바로 행선입니다. 그런고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마는 '둘이 아닌 마음'을 내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. 또 참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,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,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 버리는 마음, 즉 말하자면 아집을 가진 마음을 놓으란 말이죠. 마음으로써 행이 나올 때는 항상 평등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요.

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도반이고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서, 때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'너무 어마어마한 진리로구나. 어마어마한 공부로구나.' 너무나 엄청나서 말도 할 수가 없으리만큼, 입이 딱 막히리만큼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절에 다니면서 '이만하면은 공부하는 거로구나.' 이렇게만 생각하시지요.

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한 겁니다. 그 때문에 우리는 천체물리학을 할 수 있고 과학을 연구할 수 있고, 또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고 공학적 연구를 할 수 있고,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어떠한 물질이 나왔습니까? 우린 자비의 칼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서 그 악의 조건, 선의 조건을 다 우리 마음으로써 잘 보고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손아귀에 다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.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잘 챙겨 들으시리라 믿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.

지금같이 밝고 밝은 세대에 연구를 해낸 물건들이 모두 서로 전쟁하는 데 쓰이고, 모두 죽이고 내가 차지하겠다는 마음,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굴뚝같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,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제재할 수 있는, 타개할 수 있는,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, 또 해 보지도 못하고 실험도 못 해 보고 맛도 모르고 이런다면은 그 하나마저도 어찌하지 못합니다. 타개 못하고 조절 못 합니다.

그러니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내가 벗어나서 내가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거니와 사회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내 국가도 지킬 수 있고, 내 집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. 또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. 내 집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

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? 내 집만 지키고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,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실험하고 체험해서 스스로 단단히 지키고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역사를 가져오고 그러는 거지, 그렇게 안이하게,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그뿐이다, 허무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인 그 뜻을 모른다 이겁니다.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.

그러니까 요거는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한테 운이라도 띄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강대국에서는 연구들을 아주 열심히 해서 '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갈 수 있을까.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가서 큰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을까. 어떡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조그맣게 새조떡 두어 개 한데 뭉친 것처럼 그렇게 작게 해 가지고도 그 크나큰 거를 다 흡수할 수 있을까. 또 요만한 (주먹을 쥐어 보이시고) 덩어리를 아주 작게 해서 큰 덩어리를 반 쪼개 낼 수 있을까. 어떡하면은 음과 양을 한데 합친 탐지기나 망원경까지도 조절하고 모든 것을, 컴퓨터까지도 조절해서,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모든 거를 다 알고 보고 행해서 미리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나.' 이런 연구들을 서로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.

소련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재빨리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더 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, 연구를 빨리해서 우리는 살고 상대는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, 그런 생각들을 좀 조절해서 안유하게 만들어 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주 필요합니다. 현재는 모든 것이, 쌍방이 똑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, 양쪽이 다 죽으니까요. 양쪽이 다 죽지 않고 한쪽만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눈을 까뒤집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.

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모두 보고 듣고,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,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고, 이런 재료가 여러분한테 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보는 거 듣는 거를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이 끌어오는 힘,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첨보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구하지만, 마음이라는 것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보이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. 믿어지지 않죠? 물질로 볼 땐 "자석" 하지마는 우리들 마음공부에서는 "자력" 합니다. 안 그럴까요? 내가 표현이 틀렸을까요?

그렇다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끌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도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. 그러고도 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도 줄지 않고,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느니라. 삼천대천세계 우주 모두를,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생의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좁쌀 한 알갱이에 다 운집할 수 있다는 사실, 그래도 그릇이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.

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공부란 얘깁니다. 이건 절에나 다니고 뭐, 음식이나 놓고 빌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이 세상에 났으면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거 보세요. 만약에 자석이라고 합시다. 자석이 이만한 덩어리라면 요만한 덩어리로는 끌 수 없습니다. 거기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, 오히려. 큰 바위에 계란 갖다가 붙이는 셈이죠. 그러니까 자석이 크다면,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자석이라면 모두 거기 가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.

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태양에도, 달세계에도 모든 것이 그 분야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. 그 덩어리 바깥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,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

☞ A33면으로 계속

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



한마음선원은
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
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
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-26
www.bs.hanmaum.org | 051)403-7077
부설 한마음유치원 www.한마음유치원.kr